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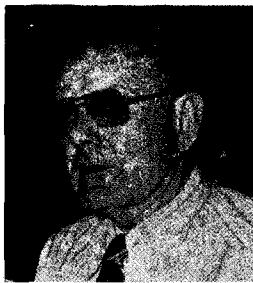
1982년도 하계 양계강습회 성료

중부·영·호남 3개지역 인원 850여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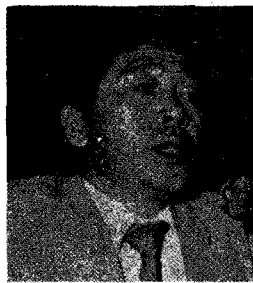
- 관련업계 관심도 높아, 양축가 높은 질적수준 보여 -



〈오봉국 교수〉



〈로버트 H. 함스박사〉



〈박근식 과장〉



〈최진호 교수〉

전국의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양계 기술 정보전달과 양계경영의 생산성제고방안, 최근 양계업계의 당면과제의 해결책을 논의한 1982년도 하계 양계강습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서울, 전주, 부산지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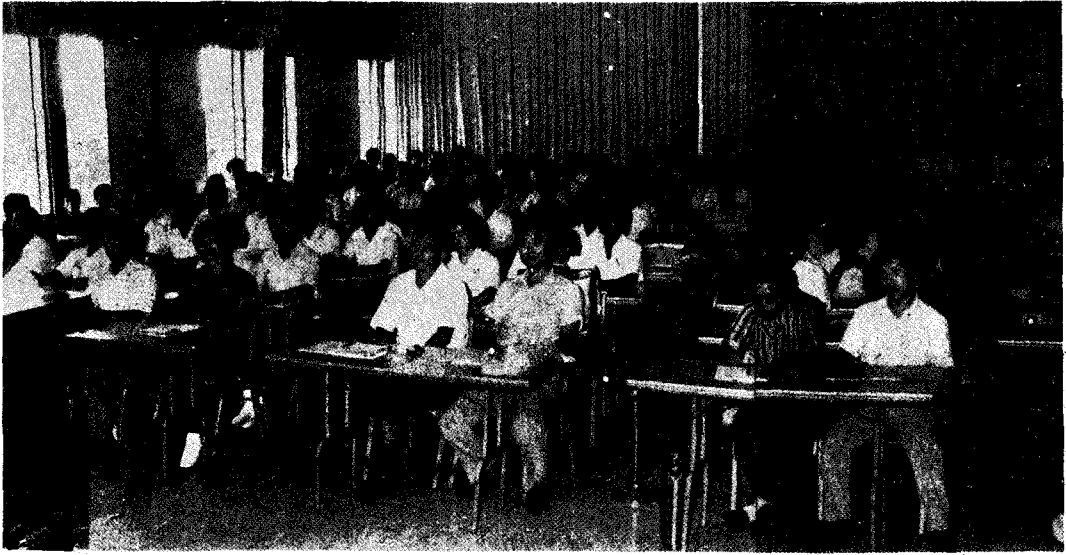
중부지역은 지난 7월 12일, 서울시 대한체육회관에서, 호남지역은 7월 14일 전주시 전북대학교 강당에서, 영남지역은 7월 15일 부산시 온천동 온천예식장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번 강습회는 본회를 위시해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회장 오세정)가 주최하고 미국대두협회(ASA)

한국지부(지부장 이경원)가 후원했으며 과학사료공사(대표 신정재), 남성산업(주)(대표 최인환), 녹십자수의약품(주)(대표 장인상), (주)중앙케미칼(대표 김무진),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 한국화이자(주)(대표 김중배)가 각각 협찬했다.

이상운 본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불황과 질병의 만연으로 양계업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협회를 구심점으로 인화단결하여 양계 산업안정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습회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가금학과교수인 로버트 H. 함스박사의 「난각질에



△ 학계, 부화장, 사료, 약품, 양축농가의 높은 관심속에 진행된 '82 하계강습회(서울)

영향을 미치는 영양적 요인」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최진호박사의 「가금영양학의 발전과 문제점」 서울농대 오봉국박사의 「양계경영과 생산성 제고방안」 가축위생연구소 제역과 박근식과장의 「닭 전염성 후두기관염(ILT) 방역대책」에 대해 열띤 강의가 진행되었다.

7월 12일 대한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중부지역 강습회에서는 학계, 사료업계, 동물약품, 부화장, 양계농가의 높은 관심으로 230여명이 경청하여 본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에도 그 관심도의 열기는 매우 높았다.

7월 14일 전북대 농대 세미나실에서 개최

된 호남지역 강습회에서는 전남지역에서 소형버스 2대와 고속버스편으로 60여명이 원정 수강하는 한편 전북지역에서도 많은 학계 및 양축가, 사료, 제약회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3백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북대 농대 학장, 이성운 전북도 축정과장, 신흥종 본회부회장의 인사말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예정된 강습회 시간을 연장하는 진지함과 열의속에 진행되었다.

7월 15일 부산시 온천동소재 온천예식장에서 개최된 영남지역 강습회는 본회 이상운 회장, 부산경남지부장, 도청 방역담당관의 인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강습회 개최 30분 전에 이미 200개 좌석이 모두 차 320명의 참석자들이 보조의자를 구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특히 경북지역에서 대학교수 및 관련업계 다수가 참석하는 등 열의는 중부·호남지역과 같았다.

한편 이번 하계강습회를 통해 대군자업, 가축병원, 가축위생시험소, 대학, 동물약품판매업소 및 판매원들의 전염성후두기관염(ILT)에 대한 수준높은 질문으로 강습회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 지방강습회 광경

제12회 축산물생산자단체 협의회 개최

- 8월 3일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



〈한백룡 전무〉 〈이택용 국장〉 〈김남용 상무〉

축산물생산자단체가 긴밀히 협조해 생산자 권익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 위해 지난 6월 발족된 축산물생산자단체 협의회 제2차 모임이 8월 3일 오전 11시 대 한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회 황인옥 전무, 양돈협회 한백룡 전무, 종축개발협회 이택용 사무국장, 낙농비육협회 김남용 상무 등 각 단체 실무책임자가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산자단체의 활성화 방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며 축산물 소비확대방안, 축산업에 필요한 토지전용 문제, 축산회관의 효율적인 운영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필요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육계생산자 월례회의 개최

- ILT 백신과 육계 계열화 생산에

대한 특강도 -



〈박영인 지부장〉

안정적 육계산업발전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육계생산자들이 모여 지역별 정보교환과 전망을 검토하고 당면과

제 및 대책을 논의하는 7월중 육계생산자 월례회의가 지난 7월 29일(목) 오후 본회 육계분과위원 및 중부지역 육계생산자 대표가 모인 가운데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브로일러의 ILT백신 사용 및 계열화생산에 관한 특별세미나가 함께 있던 이날 회의에서 이상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브로일러에 있어서도 ILT의 피해는 대단하다고 전제하고 육계생산자가 효율적인 ILT 백신 사용에 애로가 있어 본회는 육계생산자들을 위해 〈주〉한수를 통해 안정성 있는 약독화 백신을 수입해 육계회원들 위주로 사용할 뜻을 밝혔다.

또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박영인 지부장은 「브로일러산업의 계열화」에 관해 본지 2월호(통권 148호)p30 특집 기사를 인용 설명하며 브로일러산업의 당면과제, 장기적인 해결방안, 계열화를 전제한 생산자의 현황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특히 박지부장은 현재 각 부문 독립경영으로 비계열화되어 있는 현재의 브로일러산업은 공급·수요의 불균형으로 가격불안, 산업불안이 있어 산업경영의 구조를 수급조절과 가격균형을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문 통합경영의 계열화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회 육계회원들에게 ILT 약독화백신 공급
- <주>한수통해 2백만 수분 구입 -

농수산부 ILT 백신 7월말 현재 각 회사 2천1백만수분 도입 추천

본회는 브로일러의 생산자들의 안정성있는 ILT백신 사용을 위해 <주>한수를 통해 최신 개발된 일본 日生研의 약독화백신을 구입 8월초 본회 회원들에게 공급키로 했다.

ILT백신은 현재 각 업체를 통해 많은 량이 수입되고 있으나 일부 강독백신이 브로일러업자들에게는 백신에 따른 반응으로 후유증을 야기시켜 짧은 기간 육성해 출하하는 브로일러의 경우 경제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안정성이 높은 약독화백신을 공급키로 한 것이다.

이번 도입되는 백신량은 2백만수분으로 백신 구입에 어려움이 많은 본회 브로일러 회원들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각 회원들은 본회

각도지부와 분회에 필요 소요량을 신청하면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협회에서 알선하는 ILT백신에 대하여는 지난번 샘플을 도입해 국내에서 시험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약품회사에서 7월말 현재까지 도입 또는 농수산부에서 도입 추천한 ILT백신 물량은 2천1백만수분으로 한국 바이엘이 3백만수분, 녹십자 수의약품이 5백만수분, 대성미생물연구소가 3백만수분, 위림상사가 1백만수분, 다나축산이 3백만수분, 덕수가축약품이 6백만수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 광주, 제주지역 질병강습회 개최

- 지역회원의 요청에 따라 -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부(서울), 호남(전주), 영남(부산)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1982 하계강습회가 각지방의 회원 및 관련업계의 많은 관심도로 그 열기가 높아 본회는 전남 광주지역 및 제주지역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8월 6일과 11일 각각 가축위생연구소 관계관과 학자를 초빙해 질병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광주 및 제주지역 질병강습회는 현재 관심도

가 매우 높은 전염성후두기관염(ILT)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광주) 일시: 8월 6일(금) 13:00

장소: 전남 광주시 카톨릭센터

강사: 명규호교수(전남대), 김오남교수(전남대), 류제창교수(전대), 가축위생 연구소 관계관

(제주) 일시: 8월 11일(수) 11:00

장소: 제주시 상공회의소

강사: 가축위생 연구소 관계관 외.

본지 편집위원장에 김순재박사



〈김순재 편집위원장〉

학계, 연구계, 사료, 부화, 채란, 육계, 동물약품등 양계관련업계 각 분야별 권위자들로 구성된 본지 편집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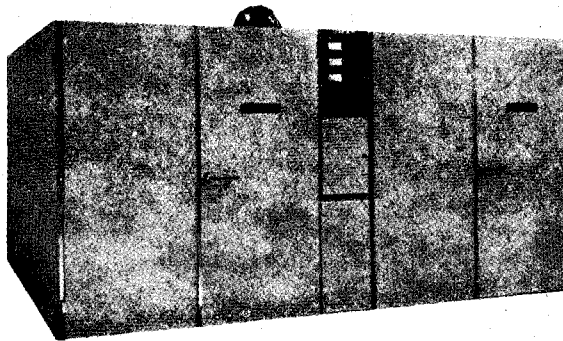
오후 5시 본회 회의실에서 금년도 제 7회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공석중이던 편집위원장에 가축위생연구소 제역과 김순재연구관을 선출했다.

김순재 편집위원장은 수의학박사로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호주, 영국 등에 유학, 현재 가축위생연구소 제역과에서 주로 닭의 병독성 질병에 관해 연구활동을 하고있다.

최근 관심도가 높은 질병만연, 방역대책과 함께 앞으로 양계경영의 집산화, 대형화에 따라 질병문제가 성패의 큰 역할을 담당할 것에 기인해 김순재박사의 편집위원장 피선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국내에서 7년간 사용중에 온습도 조절기에 고장한번 없었던 유일한 부화기입니다



50,400 卵용 33,600 卵용 16,800 卵용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